

2026. 7. 10. - 8.1.

에스텔 차(Estelle Tcha) 개인전 《Forever Is The Air Between Us》는 작가가 이전 연작에서 탐구했던 '영생(營生)'의 개념을 넘어, '영원(永遠)'이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우리는 누구나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간다. 몸도, 풍경도, 사람도, 기억도, 모두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이란 과연 무엇일까.

작가는 영원을 하나의 형상에서 찾지 않는다. 오히려 형상과 형상 사이, 존재와 존재 사이를 끊임없이 흐르는 공기에 주목한다. 공기는 어떤 존재보다 먼저 있었고, 어떤 존재보다 오래 남는다. 공기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생명을 감싼다. 움직임이 일어나는 자리이자, 기(氣)가 흐르는 장(場)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과거 불로장생의 상징인 십장생(十長生)에 주목하여 이를 현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한다. 십장생을 이루는 해와 산, 물과 구름, 소나무와 대나무, 학과 거북, 사슴과 불로초는 모두 서로 다른 생명과 시간을 상징한다. 그러나 화면 안에서 이들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서로를 스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을 이룬다. 그리고 그 움직임과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바로 공기이다. 결국 이들은 하나의 공기를 공유하며 하나의 순환 안에서 호흡한다.

공기는 어떤 형상도 갖지 않지만 모든 형상을 감싼다.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존재 사이를 흐르고, 생명과 생명, 시간과 시간, 시작과 끝을 이어준다. 보이지 않는 기(氣)의 흐름 역시 공기라는 장 안에서 움직이며, 모든 생성과 소멸은 그 안에서 서로를 통과한다.

따라서 작가는 영원을 변하지 않는 시간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동안에도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 모든 존재를 연결하고 순환하게 하는 공기의 연속성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질문해본다. 이러한 생각은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순환(Cyclicity)'의 개념과도 이어진다. 존재는 독립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과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진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사라짐은 새로운 생성의 조건이 된다. 회화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흐름과 관계를 하나의 화면 안에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 유한하지만, 공기는 자신이 감싸 안았던 모든 것을 기억한다. 어쩌면 우리가 영원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의 존재가 오래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를 품고 그 다음 것에게 건네주는 하나의 숨인지도 모른다. 화면 위에 쌓인 수십 겹의 층위 사이에도, 그 숨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Estelle Tcha 에스텔 차

eee@eeeofficial.com | www.estelletcha.com

학력

2020-2023 컬럼비아대학교, 미국 뉴욕

MA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습기술 디자인 석사 (게임 디자인 전공)

2012-2018 터프츠대학교, 미국 매사추세츠주 메드퍼

BA 철학 학사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부전공)

2012-2018 스쿨 오브 뮤지엄 오브 파인아트(SMFA - Tufts Dual Degree Program), 미국 보스턴

BFA 순수미술 학사 (미술사 부전공)

2017 파슨스 디자인 스쿨, 프랑스 파리 — 서머 인텐시브 프로그램 이수

2017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UAL), 영국 — BFA 통합 해외 과정 이수

주요 전시 및 예술 활동

개인전

2026 <Forever Is The Air Between Us>, Works Works, 서울

2025 <염원의 무게에 대하여 The Weight of the Desire We Carry >, CICA Museum, 김포

2024 <Cyclicalcity 순환 기획전>, K-Auction, 서울

2024 <Nascens>, Hippie Hannam Gallery, 서울

2024 <Cyclicalcity, Earth, Eternity>, Vichae Art Museum, 서울

2023 <Cyclicalcity, Extended>, PRGM, 서울

2023 <eee NFT: PHYSICAL FIRST>, CANVAS 3.0 Oculus World Trade Center, 뉴욕

2022 <윤희: Cyclicalcity>, Soul Art Space, 부산

단체전

2026 (Upcoming) 2 인전 (Estelle Tcha & Katya Savel), 로이 갤러리, 서울

2025 한·중·몽 현대미술 교류전, 소성미술관, 수원

2025 The 33rd Republic of Korea Buddhist Art Exhibition, 아라아트센터, 서울

2024 상설전시, Sheraton Grand Incheon Hotel, 인천 2024 Evolving Expressions: Four Artists, Four Journeys, 더컬럼스갤러리, 싱가포르

2024 POP STREET 66, Museum Wave, 서울

2023 Femalarity, Volery Gallery, 두바이

2021 Shadows, The Stable, 스위스

2020 eee,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Sync, Sync, 서울

2019 Upcycle Social Club, 8Ball Society NYC, 뉴욕

2018 Central Saint Martins Group Show, Central Saint Martins, 런던

2017 Familiar Patterns, Matter & Light Gallery, 보스턴

2017 Borders, Polykhroma, 보스턴

2012 #leftovers Group Show, 보스턴

레지던시 및 수상

2025 제 33 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대한민국

2025 BigCi 아티스트 레지던시, 블루마운틴, 호주 (2025)

아티스트 토크 · 강연 · 미디어

특강 경희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2026)

아티스트 토크 《Four Artists, Four Journeys》, 더 컬럼스 갤러리, 싱가포르 (2024)

미디어 EBS 다큐프라임 《Great Souls Bali》, 대한민국 (2024)

아티스트 토크 《Unfamiliarity》, 숭실대학교 (2024)

아티스트 토크 BigCi 오픈 데이, 빌핀, NSW, 호주 (2025)

작가 소개 About the Artist & her process

저는 ‘순환(Cyclicit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작업해온 회화 작가 에스텔 차입니다. 제 작업은 생과 사, 생성과 소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흐르는 힘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를 통해 이어지며 잠시 머물다 다시 흩어집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미술과 철학을 함께 공부하며 저는 동서양의 사유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형상은 곧 공이고, 공은 다시 형상이 된다는 사유—는 제 작업의 깊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적, 동양적 철학과 문화적 뿌리를 서구적 맥락 속에서도 이해 가능하도록 번역하고 재해석하는 과정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며 작업해왔습니다.

저의 주된 작업은 목탄과 젯소를 반복적으로 쌓고 지우는 수행적 회화 방식을 통해 제작됩니다. 목탄은 타버린 나무의 흔적으로 생명의 마지막 상태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선의 시작이 됩니다. 젯소는 시작의 바탕이 되면서도 이전의 흔적을 덮어버리는 마지막의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 캔버스 위에 수십 겹의 레이어를 반복하며, 그리기와 덮기, 존재와 비존재가 교차하는 과정을 축적합니다. 이 반복은 저에게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하나의 수행입니다.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에서 다시 생겨나는 과정을 통해 화면은 시작과 끝, 그리고 시작을 포용하는 순환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적 반복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사유의 구조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개념처럼, 형상은 공으로 돌아가고 공은 다시 형상을 낳습니다. 십장생이 상징하는 영생 역시 변하지 않는 영속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변형되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읽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작업은 한국 전통의 십장생(十長生)을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한 <영생(營生)의 염원(念願)> 시리즈로 확장되었습니다. 전통 십장생처럼 해, 산, 물, 구름, 소나무, 대나무, 학, 거북, 사슴, 불로초가 자연의 지속성을 상징하는 요소들로 구성이 되지만, 저의 화면에서는 전통 회화에서처럼 장엄하고 고정된 상징으로가 아닌, 서로 얹히고 흐르며 하나의 유기적인 장을 형성합니다. 형상은 서로 스며들고, 경계는 흐려지며, ‘영원’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호흡처럼 나타납니다. 저의 이전 회화 시리즈 <Cyclicity of Energy / 기(氣)>, <Cyclicity of Life / 윤회(輪廻) 육마도>, 그리고 <eee Universe>는 모두 보이지 않는 흐름과 교류, 그리고 순환을 시각화하고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십장생 연작은 그 탐구를 한국적 미학의 맥락 안에서 더욱 응축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시간과 기억, 소멸과 생성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서로를 비추며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순환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며, 회화는 그 사유를 가장 밀도 있게 담아낼 수 있는 매체입니다. 화면 위에 남은 흔적들은 지나간 시간의 층이며, 지워진 자리는 또 다른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적 철학과 미학을 바탕으로 동시대 회화 언어를 확장하며, 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탐구해나가 고자 합니다.

WORKS WORKS

서울 강남구 학동로56길 43 지층
@worksworks.seoul



WORKS WORKS는 작업 과정과 그 결과물이 서로 이어지며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내는 '흐름'에 중심을 두려 합니다. 작업(work)이 작품(works)으로 확장되고, 작품이 다시 또 다른 작업과 감각을 불러오는 구조 속에서 워크스웍스는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여러 지점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동시대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과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작업이 새로운 지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관객에게 심미적 아름다움과 지적인 자극을 제공하며 예술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CONTACT

Director / HYOUNG SUB JUNG

+82 10 8986 1107

worksworks.seoul@gmail.com

Estelle Tcha

Earth — Cyclicalty — Eternity : 영생(永生)의 염원(念願) III, 2025

Charcoal and Gesso on Canvas

162.2 x 130.3cm (2)





Estelle Tcha

Earth — Cyclicity — Eternity : 영생(永生)의 염원(念願) I

2025

145.4x112 cm

Charcoal on canvas



Estelle Tcha

Earth — Cyclicalty — Eternity : 영생(永生)의 염원(念願) II

2025

145.4x112 cm

Charcoal on canvas

Estelle Tcha
Moon Dance, Oasis
2024
194x130.5 cm (2)
Charcoal and gesso on canvas





